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증언

(요 3:31-36)

이종윤 원로목사

1. 최초의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증인은 첫째,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초로 보고 최초로 들은 사람만이 가장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한 바를 직접 보았든가 아니면 들었든가, 직접 만져 보았든가 하는 이런 사실을 가장 가치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둘째, 증인은 어떠한 사실 앞에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훌륭한 증인의 증거는 변함없는 증거여야 합니다. 넷째로 훌륭한 증인은 일치성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 나라에 대한 최고의 증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최초의 정보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증인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초로 정보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자요, 눈으로 본 자요, 귀로 들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 한 자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분이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아는 하나님이신고로 다른 선생들의 증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은 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도들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 자원하는 심정의 소유자

증인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묵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증거하십니까? 바로 성경 안에서 증거하십니까? 바로 성경 안에서 증거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잘 연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만큼 강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 했고, 가르쳐 주고 싶어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3) 확고한 증거의 소유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음으로 그를 보낸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성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34절).

예수님의 증거는 왔다 갔다 하는 증거가 아니고 일치된 증거입니다.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하지 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무한히 받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한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2. 최고의 증언자를 믿는 결과

'영생'은 무시간, timeless가 아닙니다. 영생은 끝없는 시간 endless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영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주님 밖에 있는 시간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영생인데 여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 신학자들은 제 각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어느 학설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설(특히 한국은 박형용 박사의 이론을 받음)을 많이 따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와있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다음 부활하여 들어갈 천국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들어간다고 했으니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 진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이 진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아가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가 그냥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머물러 있는 한 구원이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진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진노의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특권을 거부함으로써 인해서 그들은 아직도 원죄의 저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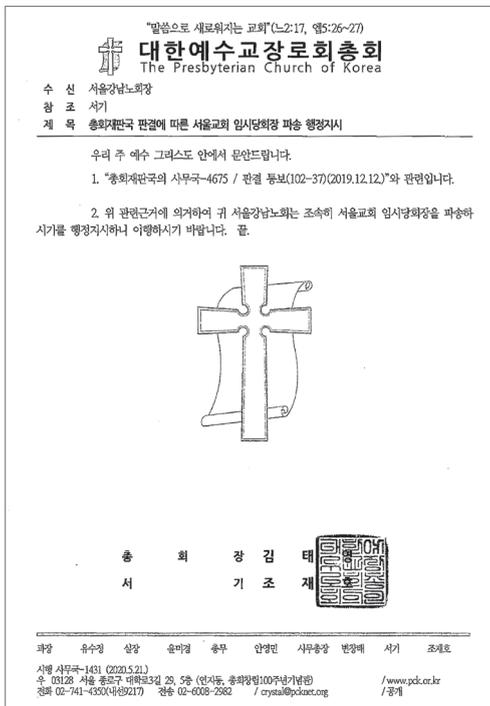
교단 총회,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행정지시

“ 만일 총회의 행정지시까지 무시하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계속 거부한다면 서울강남노회나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받을 교단 헌법상의 행정제재나 총회장의 치리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막대할 것 ”

2019년 12월 10일(화) 박노철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이 선고된 직후 당회 과반수 당회원들은 교단 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당회장 결원을 사유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총회 재심 절차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총회 재심도 2020년 1월14일(화) 곧바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당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수) 교단 총회에 총회재판국 판결은 그 선고 즉시 확정되어 당회장 결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를 비호할 의도로 재심이나 법원의 가처분을 핑계대로 더구나 재심까지 곧바로 기각되어 교단 차원에서는 더 이상 반복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여전히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교단 헌법상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고 상위 치리회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한 것임을 지적하며 서울교회가 교단 산하의 건강한 지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명령하여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5월 19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까지 기각되어 당회는 그 직후 서울강남노회에 더 이상 임시당회장 파송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 기각결정문을 첨부하여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달라는 독촉공문을 발송하면서 동시에 총회에도 위 기각결정문을 급히 보냈으며 마침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임원회에서는 당회의 위와



같은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여 준 것이다.

이제 서울강남노회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총회 재심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모두 기각되었고 더구나 상회인 총회에서조차 그동안 거부했던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핑계할 명분이 없어졌다.

만일 총회의 행정지시까지 무시하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로써 서울강남노회나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받을 교단 헌법상의 행정제재나 총회장의 치리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막대할 것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위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예상대로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 그렇지만 위 항고는 아무런 집행정지 효력도 없으므로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울교회 과반수 당회원이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 상회로서 지교회 행정을 정상화 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유·초등부 온라인 성경퀴즈대회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유·초등부에서는 온라인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오늘 저녁 8시, 각 가정별로

진행하며 출제 범위는 지난 사랑의 택배로 받은 '말씀의 숲' 공과 책과 온라인 예배 때 나온 문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방식을 연구하는 교육부서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노영환·홍은경 유성택·권진순 송인덕·이홍숙 이주현·이주영 무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기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지난해 목회정책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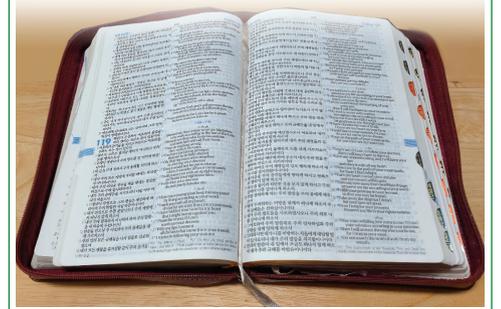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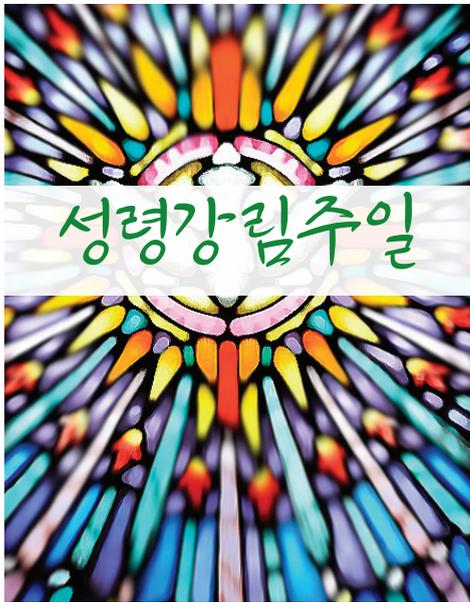
* 일시: 9. 27(주)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 10(토)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출 23:1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엔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편집부)



오광환 장로
(2020 흥해작전 부장)

이스라엘 민족이 43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 하는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전차를 앞세운 애굽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

흥해에 이르러 앞에 흥해가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자 지도자 모세를 비롯한 온 백성들의 기도로 흥해가 갈라져 길을 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마른 땅 건듯 흥해를 건넌다. 그러나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흥해에 이르자 다시 갈라진 물이 하나 되어 애굽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기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 많은 나라가 Covid-19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팬데믹 상황과 미중 무역전쟁, 중동 아프리카의 종교분쟁과 테러 사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과 전염병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경제 보호 무역 정책으로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많은 경제적 소외 계층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교회는 지난 5년간 예기치 못했던 교회의 분쟁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 회복을 열망하며 기도하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0 흥해작전은 위와 같이 각종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점에서 시작합니다.

흥해작전은 서울교회가 설립 이후 다음 해부터 매년 보훈의 달인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온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온 말씀과 기도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5년째 이어진 교회 분쟁으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또한 2층에서 악한 영을 따르는 무리들이 불법으로 교회당을 점거하



고 있어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과 염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와 법원에서 대부분의 법적 재판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몇 남지 않은 무리들의 승복을 모르며 끝까지 항고와 상고를 이어오는 끈질긴 법적 다툼으로 온전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로 소규모 인원들이 모여 거리를 두고 예배하거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무장하여 우리 앞의 흥해를 건너야 하겠습니다.

금년 흥해작전은 아직 사회, 학교, 각종 종교 활동 모임이 자유롭게 못한 상태에서 최대한 정부 방역대책에 맞추어 6월 6일(토) 흥해작전 개

(4면에 계속)



(3면에 이어) 전예배를 드리며 6월 17일(수)까지는 새벽 5시 30분부터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2020 흥해작전 공동 기도제목과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6월 18일(목)부터 25일(목)까지는 새벽 5시

부터 6시까지 매일 주력 교구가 교회에 모여, 다른 교구는 각자의 처소에서 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법원 판단인 대법원 상고심이 원심대로의 판결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흥해를 건너며 총회와, 노회도 정상

적인 행정조치로 빠른 교회 회복과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흥해인 우리 속의 가시들을 뽑아내기를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입성한 것 같이 온 교회가 일어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호반라이온스클럽 호산나대학에 사랑의장학금 360만원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호반라이온스클럽(회장 이춘옥) 임원분들이 지난 5월 26일 호산나대학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태도가 바른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사랑의장학금 3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서울호반라이온스클럽은 2018년 2월에 창립되어 현재 50여 명의 회원들이 서울·경기지역 노인 복지관과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헌진가수와 함께 노래봉사, 기부금 전달,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춘옥 서울호반라이온스클럽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니 가슴 뿌듯합니다", "서울교회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 호산나대학을 설립한 과

정,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특히,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지원한 애견직업훈련센터에서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강아지도 훈련하고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동물매개치유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다", "앞으로도 클럽 차원에서 호산나대학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귀 호산나대학 부학장은 "서울호반라이온스클럽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 있는 청년이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등정

■ 이전 감사예배 :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 서창원 목사)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31-16 신일빌딩 4층
일시: 2020년 6월 4일(목) 오전11시
설교: 이종운 원로 목사

■ 개업 : 5교구 하영인 집사 '이브라 성형외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5
우성 센트럴타워 2층 T 031) 377-7378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온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20 흥해작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있는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2. 안식년 분안 대법원 상고심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남아 있는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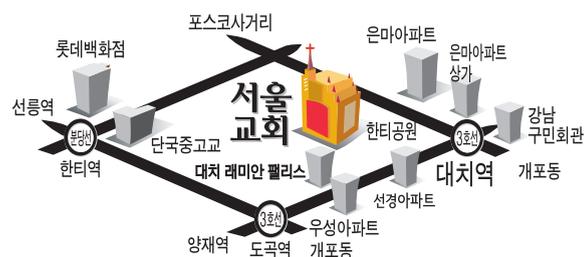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일	월	욘 11-14		요 1-5	
6월2일	화	욘 15-18		요 6-8	
6월3일	수	욘 19-21		요 9-12	
6월4일	목	욘 22-26		요 13-17	
6월5일	금	욘 27-30		요 18-21	
6월6일	토	욘 31-33		행 1-7	
6월7일	주일	욘 34-36		행 8-11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